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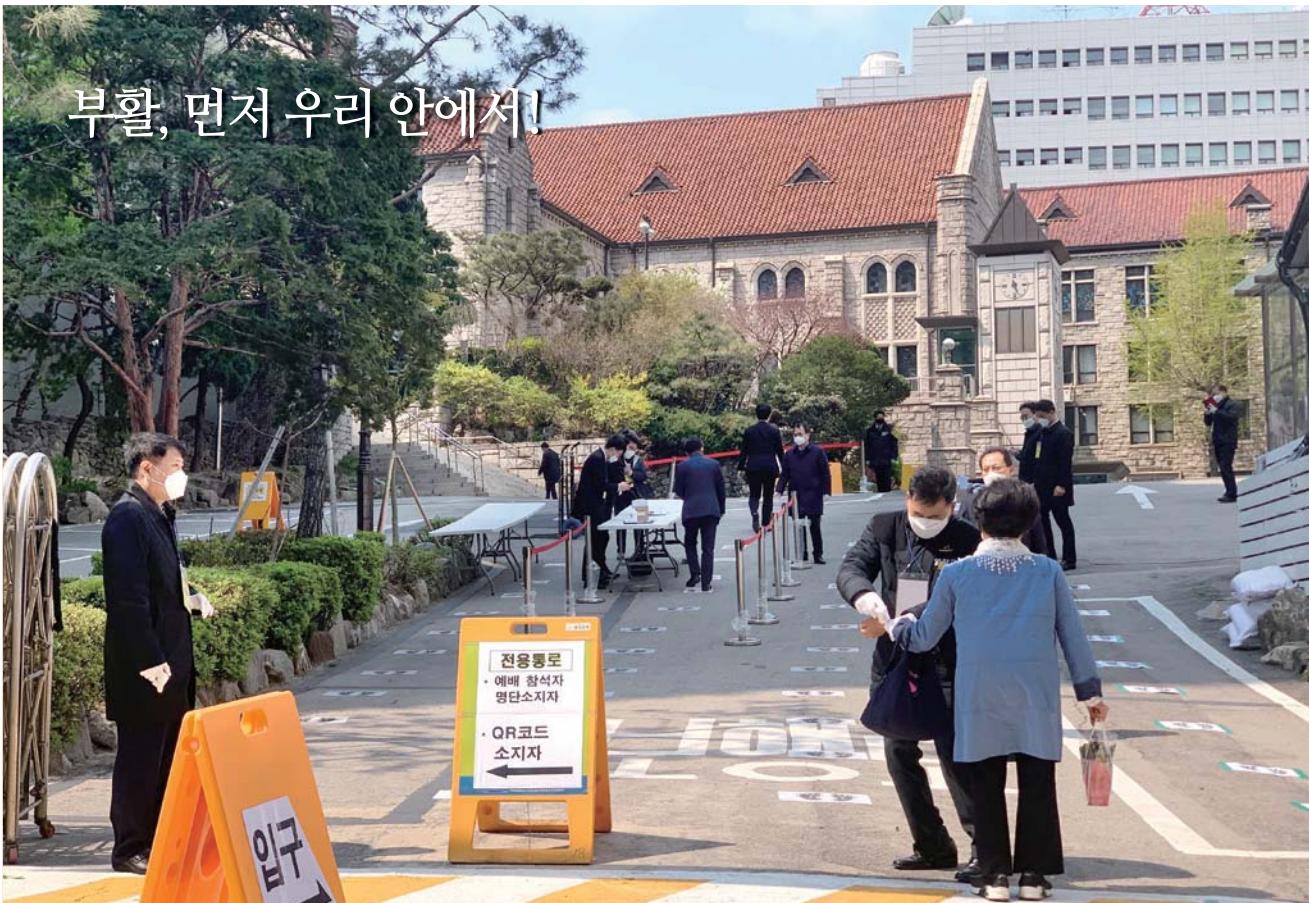
만남

05

2020
통권 55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부활절 맞아 주일 회중예배 재개, 온라인예배도 병행

예배당의 문이 다시 열렸다. 교회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 회중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회중예배와 온라인예배로 병행해서 드렸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안전한 방역을 위해 정문에서 교적 확인과 발열 체크를 마친 등록 교인에 대해 예배당 출입을 허용했고, 예배 참석 인원의 분산을 위해 주일 오후 5시에 6부 예배를 신설했다.

김운성 목사는 이날 누가복음 24:50~53절을 본문으로 ‘부활, 먼저 우리 안에서’란 제목의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교훈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그대로여도 우리 삶이 변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자”고 권면했다. 6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음악부 주최로 부활절 음악회가 열렸다.

취재 장덕진 편집위원, 정다은 기자 사진제공 국민일보 송지수 인턴기자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가정, 꼭 지켜야 합니다 김운성
- 영락칼럼** 04 왜 똑똑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질까? 유영권
06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교회 박홍준
- 특별기획** 09 아이들과 부모, 교회가 함께 커갑니다 이영철
12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교육할까 노대웅
14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최재선
- 땅끝까지 이르러** 16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다 이민하
18 부부선교회를 통한 주님의 부부 사랑 김지훈
- 다음 세대** 20 그 무섭다는 종2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강명구
22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현지
24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우대권
26 서울 곳곳 신앙의 유산을 찾아 나서다 김영미
28 말씀노트 쓰면서 사순절을 지냈어요 배세온
- 야곱의우물가** 29 호롱불이 꺼질 때 이정원
30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김유진
- 영락의 올타리** 32 야, 너도 구역장 할 수 있어 이미경
34 꽃바람에 코가‘간질간질’ 정광윤
36 결혼을 위해서는 세 번 기도하라 이영철
38 까마귀와 늑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 최성남
- 문화광장** 40 사랑을 선택하다 백성우
43 찬양에도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박신화
46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김충섭
50 은퇴제직상조회 안내
- 교회소식** 52 한경직 목사 20주기 추모예식 등
53 5월 목회력
54 영락회랑 작가노트
55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6 편집장 레터

표지설명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들의 예배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교회교육과 가정은 영적 성장의 기반입니다. 이번호 특별기획으로 생각해봅니다.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외

가정, 꼭 지켜야 합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다음은 2003년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글이라고 합니다.『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는 못을 쟁쟁 소리 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도 못은 하나씩 늘어 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박혀 있는 못들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 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암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소. 못은 없어졌어도 자국은

남아 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이 지난 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유는 요즘 우리 가정들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그대로 보고 있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꿎은 나무에 못이나 박으며 참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엔 남편에게 달려들든가, 당장 이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 권위를 거부하고 해체를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윤리, 그것들

에 의해 지탱되던 삶, 그 배경과 기초가 되던 가정과 이웃, 직장과 활동, 인생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형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585만 가구로서 전체의 29.3%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가 이미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미국보다 높고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킨 후 부부만 살다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 혼자 남습니다. 자녀와 합치지 않는 한 1인 가구가 됩니다. 전에는 혼자된 분들이 당연히 자녀와 함께했는데, 요즘엔 혼자 계시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고들 말씀합니다. 게다가 황혼이혼까지 늘면서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이 대학 입학 등으로 부모님을 떠나면서 자연적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적령기를 넘기면 혼자 지내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누리도록하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돌봄, 양육, 치유, 격려, 위로, 풍성하게 함, 자존감의 고취, 축복, 기도, 돌아갈 고향… 이런 가정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 외의 그 어디에서도 이런 소중한 것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복지국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과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것들이 가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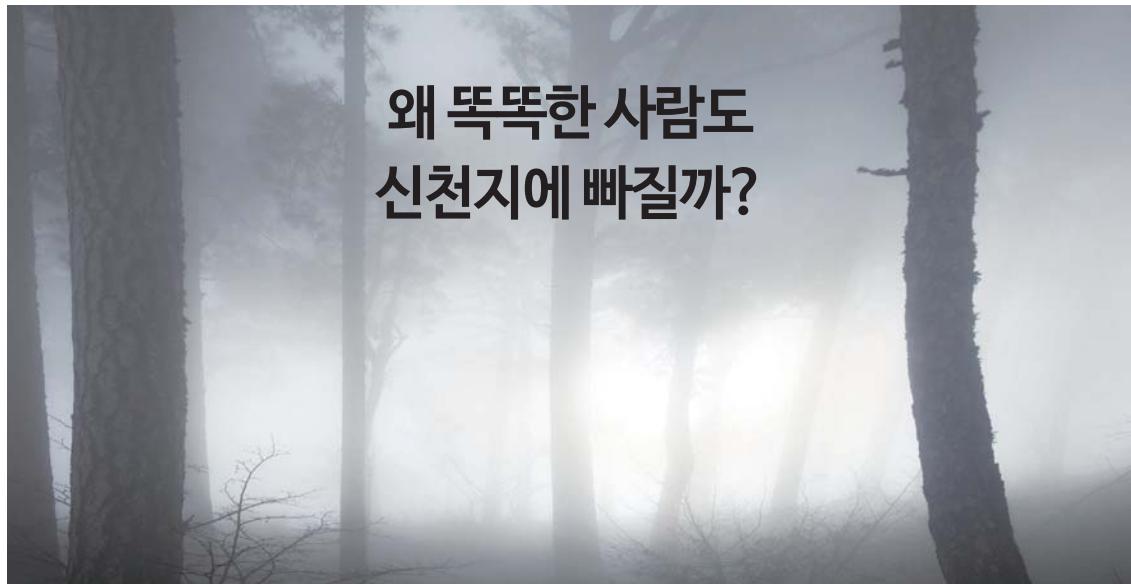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교육함으로써 신앙을 계승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너와 네 집”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가정을 구원의 단위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과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신앙과 삶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네 삶을 위해 가정보다 소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5월이 되면 영국인 헨리 비숍이 작곡하고,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 가사를 불였다는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이 생각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기간에 북군은 이 노래를 금지했는데, 병사들이 집 생각에 빠진 나머지 탈영을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119대작전 한 줄 기도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고백한 글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내길 기원합니다. **만남**

왜 똑똑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질까?



사이비·이단 교주들과 신도들의 왜곡된 심리 상태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속에 신천지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단 종파인 신천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교단에 투신하게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코로나19 집단 감염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신흥종교 출현은 사회 혼란과 연결된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집단의 위기가 있는 경우 신흥종교는 그 틈을 이용해 사회에 침투한다. 신천지는 특히 젊은 층에 접근해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한다.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교양 인문강좌로의 초대 등을 구실 삼아 의심 없이 따라나서게 한다. 요즘은 심리상담을 구실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다. 신천지라는 조직은 현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불안, 좌절 등을 위로 하며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간다.

많은 분이 질문한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신천지에 빠지고 그 집단에서 해어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을 찾아보았다.

첫째,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 준다. 신흥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수용의 경험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이들에게 수용의 공간을 제공하는 신흥종교에서 안식과 위안을 느끼는 것이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14만4천 명의 용사가 된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든든한 자기감이 형성된다. **현실 속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틀을 신천지는 교묘하게 제공해준다.** 매일 기도해 주고, 관심을 보여 주는 소집단을 통해 따뜻한 수용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둘째, 왜곡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삶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초스피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항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격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양극화되어가는 시대에서 차별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만 뒤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품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방어기제를 발동하게 하는데 그중 하나는 강박적 사고를 경험하며 경직된 사고에 머물고 그 사고를 고집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양태는 자신보다 큰 인물과 권위 혹은 힘에 의존해 현재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신천지 신도들은 메시아인 교주에게 자신들의 불완전한 미래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자신들의 현재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신흥종교의 교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신과 같은 존재로 우상시 된다. 교주는 자기애적 성향이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은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과대망상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자기애적 성향의 특징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에 둔감한 공감능력의 결핍을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자기애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도들은 불안심리를 다루기 위해 의존하려는 성향이 필요하고,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주는 자기를 추앙해주는 추종자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병리적 욕구가 결합해 폐쇄적인 신흥종교집단을 이루게 된다.

셋째, 그릇된 신앙적 우월감이다. 신천지 교인 중에는 기존에 교회를 다녔거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기존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동방의 새 예루살렘 성도가 된다는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 7개월 동안 집중된 성경공부를 통해서 기존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 화복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복음이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신천지는 철저한 교리에 입각한 신흥종교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신천지 교회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주장과 그들 나름대로 명쾌하게 풀어가는 성경해석들에 빠져서 기존교회가 제시하지 못하는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처럼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 안에서 소속감, 안정감, 우월감을 가진다. 더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교회에서는 현대 한국인들의 지친 마음과 불안한 정서를 안아줄 수 있는 안전한 영적·심리적 공간을 제공해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안아주는 공동체(Holding Environment)다.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모였다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어, 성도들이 돌봄을 느끼고 건강하게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안아주는 공동체여야 한다. 신천지와 같은 신흥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가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역할 하는 것이다. **만남**



유영권 교수
연세대 신과대학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교회



지난 3개월은 온 국민, 아니 인류 전체가 단어 하나에 묻혀버린 듯하다.

‘코로나19’

2019년 12월 31일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시의 수산시장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폐렴이 다수 발생했음을 WHO에 보고한다. 고열, 기침, 인후통, 피로 등을 보이는 이 신종 질환은 한국에서도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보고와 대구, 경북지역의 대량 환자 발생으로 이어지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과 지역사회 감염으로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WHO는 3월 11일 범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포했으며 유럽, 미국, 호주,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며 인류역사상 새로운 감염병을 맞게 되었다.

원인균 신종 RNA바이러스 (SARS-CoV-2)

코로나19는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100nm(nm : 10억분의 1m) 내외 크기의 왕관 모양 신종 RNA바이러스(SARS-CoV-2)가 원인균이다(왕관 모양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을 얻었다). 한 가닥으로 되어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겨울철 감기의 원인균이지만 돌연변이를 통해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전염 질환의 원인균이 되었으며 코로나19 역시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96%의 유전자가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함이 밝혀졌다.

증상 기침, 고열, 호흡곤란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 후 목에서 자라나 폐로 내려간다. 대표적인 임상 증상은 기침, 고열, 인후통과 호흡곤란이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목감기 증상으로 80%의 환자에게서는 경미한 상태로 지나간다. 그러나 폐로 내려가는 15%의 경우 중증 바이러스성 폐렴이 되며 5%의 환자에게서는 위중한 상태, 특히 고령이나 기저질환(고혈압, 심폐질환, 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호흡곤란,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로 빠르게 악화해 약 1% 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급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음압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등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중증환자 증가는 의료진과 병실, 장비 부족으로 기존 의료체계 마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감염 후 평균 4~5일의 잠복 기간에는 증상이 없음에도 무증상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전파력 또한 강해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감염 비밀과 접촉

초기 감염은 우한의 화난 해산물 도매시장에 직접 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박쥐)-인간 전파가 주요 메커니즘으로 추정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는 1~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콧물 속의 바이러스가 비밀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밀 내 바이러스가 입, 코, 눈 등의 점막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감염되며, 환자로 인해 오염된 물체 및 표면을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입, 코, 눈 등을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또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3시간까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를 해주어야 하며 다양한 표면에서 4시간부터 일주일 정도까지 예상보다 길게 생존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 등 접촉감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예방 마스크,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방과 전파방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비말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의 전파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는 규격에 따라 KF80, 94 등이 있으며 직접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KF80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1회 사용이 원칙이며 요즈음처럼 마스크가 귀한 시기에는 습기를 잘 말려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손 씻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한 자주 비누를 사용해 20~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과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절대로 입, 코,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최대 유행어인 사회적 거리 유지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을 통한 전파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대방과 1~2m 이상의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치료 백신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로 변이의 가능성성이 크고, 백신 연구가 시작되어도 개발 후 상용화까지 최소 1년~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의 묘수가 없는 것이 답답한 점이다. 또 기존의 바이러스 약제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치료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에볼라 치료제인 람데시비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항바이러스제인 칼레트라 등에 관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그 효능을 임상시험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60~70% 이상이 앓고 지나가면서 집단면역 (Herd Immunity)을 얻고 나서야 감염이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맺음말

온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이다. 시간이 흘러 이 사태가 진정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예배 환경이 감염확산에 취약한 현실에서 행정당국과 매스컴 등으로부터 도에 넘는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세상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양육은 받았으나 흘어져 나아가는 제자의 도를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119 대작전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간구한다. **만남**



박홍준 장로
중구·용산교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아이들과 부모, 교회가 함께 커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의 사명을 생각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우리 교회학교는 다양한 예배 방법을 찾아 사랑부, 영·유아·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각기 처소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영락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어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씀은 지금 교회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 출생이 계속 감소하는 이때 교회학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부는 교회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다음 세대를 위한 실천사항을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1.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가정예배 활성화

교육부에서는 가정예배를 위한 교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정예배를 활성화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정예배학교 4기 과정(주일, 7주 과정)을 개설합니다. 실제적인 가정예배 훈련, 은혜로운 만남, 나눔 과정 등을 통해 가정예배의 토대를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기 기대합니다.

2. 부모들을 신앙의 교사로 세워 교회와 가정 사역 연결

신명기 6장 6~7절에 보면 신앙교육의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 특히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신

앙교육은 위탁 교육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교회와 가정 사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부모가 담당해야 합니다.

3. 청소년·청년이 각자 삶의 터전에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문학, 예술,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이 창의적으로 엮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묶어내는 ‘통섭’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 이를 묶는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통섭적 삶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영락의 교육은 통섭적 신앙교육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세워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신앙양육과 제자훈련과정, 성경 중심의 삶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교회교육, 신앙적 진로와 비전 세우기, 신앙적 멘토링 과정과 실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 코칭, 그리고 이를 실천적 배움과 나눔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4. 교육부 내의 모든 행사와 활동을 아동·청소년 직접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

이제까지 교육활동 중 형식적인 활동은 과감히 취소하고 다음 세대와 가정이 의미있게 참여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꽃들의 잔치는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과 가정이 함께하는 ‘영락가족사랑’ 잔치로 진행하며, 10월의 리틀스타음악제도 전 가족과 교우가 참여하는 축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수련회와 해외 비전트립은 학생들이 참여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

수련회와 해외 비전트립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해외 비전트립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그 환경 속에 참여케 해 참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선정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중등부장으로 봉사할 때 학생들의 해외 비전트립을 동행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열정을 보면 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채찍질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해외사역을 통해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함을 확인해 보았고, 지구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제일 중요

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일정 속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6. 교사교육부의 신임교사 배출은 교회학교의 미래

지난해에 65명의 교사가 교사교육반을 수료하고 사랑부에서 청년부까지 전 교육 부서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을 갖추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합니다. 작년부터는 매월 교사들이 함께 모여 ‘다음세대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 각 부서에는 연륜이 풍부하신 교사도 필요하지만, 청년층의 젊은 교사가 매우 부족하오니 올해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성도가 참여하셔서 영락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소망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교사양성 과정 안내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 성경에 대한 이해, 아동·청소년 등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학생상담, 교사로서의 영성훈련, 가르침의 방법, 현대 문화와 다음 세대, 영락 교육의 역사 이해 및 교육현장 탐방 등 교회학교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총 20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영락교인으로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신 세례교인

교육기간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5월 3일
첫 주 개강입니다.

지원문의 : 교육부(02-2280-0131)



7. 교회교육원: 영락 교육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그동안 교회교육원에서는 교회-가정 연계사역, 원포인트교육, 가정예배사역 및 부모교육 과정, 청년 멘토링 과정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이를 현장교육에 적용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세대를 기도 가운데 미리 탐구하고 준비하도록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영적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고 나아가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시스템, 즉 건강한 신앙교육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영적성장은 부모의 신앙과 연계됩니다.

가정에서 어른들이 가정예배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곳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부모초청 예배와 세미나, 교역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지도와 심방사 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올바른 신앙교육과 영적 만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원하겠습니다.

‘10대에 꿈꾸며, 20대에 계획하고, 30대에 실천’하는 꿈을 이루어내자면 10대부터 잘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꿈은 물론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조언자와 함께할 때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부의 교회학교는 영락교회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해야 영락교회의 미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많

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우리 교회의 자라 나는 세대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만남**



이영철 장로
동대문·중랑교구
교육부 부장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교육할까

- 그리스도인의 청소년 자녀 교육 -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

기독교 신앙이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창 1:26)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창 8:21).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한다”(롬 3:23)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제에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교육할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점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마음에 큰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요 3:3)과 바울 서신에서 언급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독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에 초점 맞춰

교회 교육은 ‘회개’에서 출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물과 성령(요 3:5)으로 세례를 받고(벧전 3:21, 막 1:8)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의인으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죄로부터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마 16:18). 기독교인은 자녀 교육에 앞서 교회의 중요성을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자녀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참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교육의 초점은 바로 ‘회개’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회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회심의 경험을 기억하고, 자녀를 본인이 경험한 회심의 장소인 교회학교로, 교회학교 예배와 수련회로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되었다(창 2:7)는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임태(마 1:18)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요 1:14)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중풍 병자의 친구들(막 2:3)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막 5:22)와 같이 영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메고서, 혹은 그 자녀를 대신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막 2:5) 역사를 자녀의 삶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 문제 앞에

서 두려워하는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막 5:36).

세 번째로 거듭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마 28:18~20).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도록 가정에서 교육해야 함과 동시에 교회학교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육받은 우리의 자녀를 학교로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지닌 영적 지도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과 소망을 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가정과 교회학교와 학교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교육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영락교회의 가정
과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만날**



노대웅 목사
고등부 전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미래는 현재의 청년세대를 진단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견된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수많은 청년세대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불확실한 혼돈과 암울한 전망입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 사역 현장은 변화의 골든 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외적 요인입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청년들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세속화, 맘몬이즘, (알아들으실까요, 모두?)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기할까요?) 다원주의의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수히 접하는 다양한 대중매체, 즉 TV, 영화,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패턴들로 마음에 각인됨을 뜻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노출과 흐름은 어느새 청년들의 가치관, 자아관, 세계관에 영향을 끼쳐,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체계를 형성하고 세속화된 문화의 방향성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둘째는, 교회 내적 요인입니다. 여기서 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어려움’입니다. 과거에는 대화와 소통, 신뢰와 섬김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고 유연했던 청년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 선후배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갈등을 두려워하고, 서

교회안에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 호소

청·장년층 단절에 관심가져야

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파편화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쟁적이고 분주한 학업 생활과 직장 생활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와 목회자, 교회 중직자의 이중적이며 독단적인 모습으로 인한 신뢰도 상실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빈번하게 이슈화되고 세상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청년이 말씀과 삶에 부합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델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은 사회와 교회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필수적이고 정당한 권리조차 자신의 권리나 생각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청년에 대한 교회의 이해 부족과 청년 목회자의 거룩한 소명의식 부재입니다. 사회·시대적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 연령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혼인 채 나이를 먹어가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단절되어 있는 현실 등, 청년이 보여주는 구조적 현상에도 적절한 대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년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명,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로서 장기적인 사역과 안정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나는 교회를 꿈꾸며

청년 목회는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반짝이는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목회에 대한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 청년을 향한 궁극적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화’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청년문제 중심에는 복음의 부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출석했지만,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담대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며, 이에 합당한 제자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고 세워야 합니다.

첫째로, 이는 성령 충만한 열정적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언제나 교회의 심장이 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호흡하며, 청년성에 합당한 예배를 통해 마른 심령과 공동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로, 청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섬기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고민과 생각,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관심을 두는 일을 말합니다. 신앙과 함께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 즉 진로와 적성, 연애와 결혼,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학업 등에 대한 대답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성찰과 응답으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청년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과 현실적 섬김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남**



최재선 목사
청년부 전담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요 1:23)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절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자신의 사명을 훼방하는 교만함을 용납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부르짖는 소리로 충성과 진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대, 이 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를 외치는 ‘소리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소리선교회는 영락교회에서 섬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린 9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평신도 선교사 사역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 67:3)

먼저 소리선교회가 후원하는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사역지에서 현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고아양육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지 특성상 활동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요르단(최요셉), 파키스탄(하순종), 타지키스탄(조은산), 터키(유재현), 라오스(박관수), 우즈베키스탄(오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예배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네팔(고연희), 방글라데시(정익모), 북인도(서땅끝)에서 는 잘못된 종교의 신념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거리에 내몰리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양육하는 고아양육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소리선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민족과 열방을 품고 매월 소리선교회 열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육하는 고아와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평신도 선교사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자를 선교에 동역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양육하고 예배를 일으키는 평신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사역에 소리선교회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그 땅의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에 열방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팔 고연희 선교사가 돌보는 어린이들이 사진을 통해 소리선교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리선교회 열방예배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열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양육하는 고아들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후원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함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4. 2020년에도 고아를 양육하고 평신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많은 일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만날**

소리선교회 열방예배 안내

일시 : 매월 셋째 주 3부예배 후(12시 40분 ~ 14시)

장소 : 봉사관 505호

문의 : 소리선교회 회장 010-3723-8766

비록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소리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민하 안수집사
강북·도봉교구
소리선교회 회장

부부선교회를 통한 주님의 부부 사랑

신혼부터 초등자녀 둔 가정이 참여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가장 행복해하는 시기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결혼 초기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와 같은 경험이 결혼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해롭게 이겨내고, 출산으로 발생하는 신앙적 공백을 말씀과 소그룹 나눔으로 극복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선교회’는 청년부 부부성경반을 모태로 시작한 선교부 소속 자치회입니다.

가정을 이룬 후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일까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책 제목같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아이의 아빠와 엄

마로 처음 경험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 초기가 지나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 등 모든 면에서 가정이 불안정한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부부성장의 시기입니다. 이때의 부부는 시간에 쫓기며 신앙생활도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듯이 영락의 공동체 특히 부부선교회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외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도 힘써

부부선교회는 지난 2013년 선교부 소속의 자치회로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신앙 훈련 공동체인 부부선교회는 주일 오후 3시, 50주년 기념관 2층 유치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소그룹 성경공부, 친교와 나눔을 통해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



월 M국, V국, N국의 선교사님과 영락모자원 한 가정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선교회의 등록 가정은 48가정으로 매주 약 27 가정이 출석하며, 자녀들을 포함 약 10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별로 약 6~7가정씩 1조부터 7조 그리고 신입 조까지 총 8개의 소그룹 형태로 구성되며, 재작년부터는 부부선교회 내 여러 부서(선교부, 찬양부, 친교부, 홍보부, 자녀양육부)가 출범하여 조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부서에 속해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부에서는 원활한 소그룹 성경공부를 돋기 위해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령대 프로그램(미취학/취학)을 운영하며 탁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담당 목회자(조두형 목사)가 오셨습니다. 덕분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회원들과 목회자 사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라는 말씀처럼 부부선교회가 지금껏 걸어왔던 길은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해주신 길이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젊은 세대는 가정을 이룬 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무



척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부선교회는 탄생, 양육, 성장, 나눔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삶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 부부선교회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셨음을 믿고 젊은 부부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나누고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정과 민족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부부선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영락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남**

부부선교회 모임 안내

대상 : 신혼부부~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 교인

일시 : 주일 오후 3~5시

장소 : 50주년기념관 2층 유치부실

문의 : 부부선교회 신입조장 010-8904-3052



김지훈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부부선교회 회장

그 무섭다는 중2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교사양성반 수료 후 Cebc에서 5년간 봉사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다소 재미없는 분반공부라도 집중해 주었습니다. 보충 자료를 조금만 준비해도 집중도가 크게 높아지고요. 조금만 친해지면 양쪽 어깨에 주렁주렁 매달리며 좋아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혹 숨증 내는 기미가 있으면 편의점이 약이었습니다. 제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중등부 교사로 옮길 때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Cebc 때처럼 하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북한도 두려워한다는 중2 담임을 맡으라 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첫날 경험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밝게 인사했는데 본체만체했습니다. 농담해도 웃지 않았습니다. 분반공부하려고 하는데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친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중1 중반~중2 중반이 사춘기

하지만 그 기대는 1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금 친해지니 대놓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때 뿐이었습니다.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였던 먹을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회식하자고 하면 조용히 따라오는 친구와 싫다고 하는 친구로 나뉘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준다는데 싫다고 하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우겨서 데리고 가기는 갔습

니다. 조용히 따라온 친구는 말없이 밥만 먹었고, 가기 싫다고 하던 친구는 여학생인데 거의 먹지도 않고 남겼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혼자 떠들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서로의 이름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격려가 되었던 일 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 어머니로부터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예전보다 성실히 교회에 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곁으로는 전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말입니다.

2년 차부터 특활반인 기자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자단은 1학년 친구들을 받으면 같은 아이들이 3학년 마칠 때까지 계속 담임을 맡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부터 3년간 아이들과 함께하며 중학생 아이들의 시기별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학생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것 이고, 자녀가 앞으로 중학생 시기를 보내게 될 분들 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질 최적기

중학생은 시기에 따라 세 가지 이질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이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1 올라와 6개월 가량은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직 코를 훌리기까지 합니다. 목사님이나 선생님



에게 초등학생처럼 반응을 곧잘 합니다. 눈치가 없어 이상한 답을 하거나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웃길 때도 많습니다. 아직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지 않죠.

1학년 중반부터 2학년 중반까지가 사춘기입니다. 제가 첫해에 당황했던 학년입니다. 진정한 중학생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죠.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며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주변을 크게 의식합니다. 창피당하기 싫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춘기는 정상적인 시기입니다. 육체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 독립을 위해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변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배타적이거나 반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착했던 아이의 변화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지만, 사실 아이들도 스스로 상처받으며 다소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2학년 중반부터 3학년은 사춘기를 지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갑니다. 정신적으로는 거의 고등학생인데 공부 부담이 적어 더 밝고 즐겁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3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중등부 생활을 많이 즐깁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고요. 사춘기 때와 달리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애정 표현도 곧잘 합니다. 즐거운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고등부에 가고 나서도 많은 친구가 중등부를 그리워합니다. 고등부 예배 후에 괜히 중등부에 와서 선생님에게 하트를 날리며 반갑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2학년 때까지 내 속을 그렇게 썩였던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어렸던 아이가 사춘기의 변화를 거쳐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중등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중등부교사

제가 첫해에 겪은 것처럼 처음 중등부 교사가 된 분들은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중등부 만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게 눈길도 주지 않던 아이가 졸업 후 찾아와 안아주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스마트폰만 보던 친구가 고등부 가서 비전트립도 가고 졸업 후 교사로 봉사도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중등부 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니컬하고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라도 즐겁게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힘든 아이들을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죠. 그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저희 교사고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교사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만남**



강명구 집사
강남교구
중등2부 기자단 교사

생태계 위기, 우리의 미래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워 왔습니다. 유치원이나 교육방송에서는 ‘지구가 뜨거워져요’, ‘오존층이 아파요’와 같은 표현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오랜 시간, 끊임없이 거론된 이야기이기에 아마도 많은 분께서 공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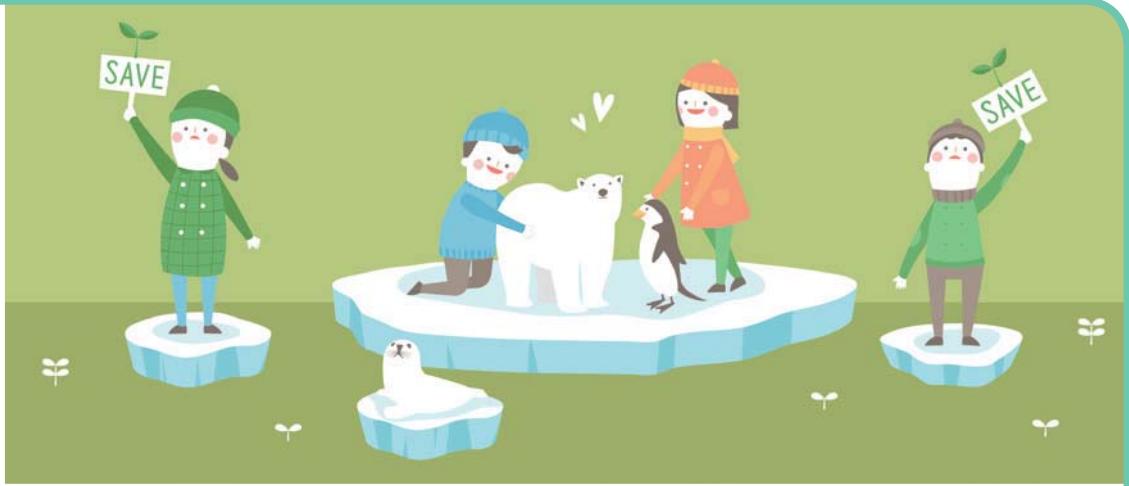
20여 년이 흘러 저는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단호하게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더 나아가 “훨씬 심각해졌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아마존 우림과 호주의 대형화재 소식, 대형 사이클론 현상, 당장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람이 일으킨 기후변화로 멸종된 첫 번째 포유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의 환경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비단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부모님 세대와 다음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담론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두

가 환경문제를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화석연료나 플라스틱을 비롯해 수많은 환경오염의 원인은 이미 우리 삶과 밀접해 있습니다. 이들을 생활에서 모조리 없애고 환경을 재건한다는 상상은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회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을 다 잡으려는 ‘그린뉴딜’, 사람이 자연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드러내는 ‘인류세’, ‘생태주의’와 같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경향이 흘러가는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막막한 시기일수록 우리 젊은 세대가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온 우주가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찬양할 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5절에서 주님은 사람을 에덴동산에 이고시곤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다른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위탁을 받은 존재입니다.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에서 저자 반다이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대로가 아닌 그분의 목적대로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특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일과 그분의 창조세계를 찬양하는 기쁨에 무관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창조세계가 생태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오늘날 과학과의 갈등 속에서도 창조신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연을 마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 명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약자를 돌보시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서 생태계 보호를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팁박받는 자와 병든 자를 돌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지셨고 집에 함께 거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을 지배하고 갈취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신학 등이 함께 파급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약자의 위치에서 생각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 여겨집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여러 사회정의를 감당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락교회는 어둡고 힘든 역사 속에서 어려운 이들의 거처가 되어준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이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영락교회가 미래 후손들을 위해 먼저 환경보호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기후현상, 대형 산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현재 삶의 환경을 정확히 직시하고, 우리 젊은 세대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남**



이현지 성도
홍보출판부 출재기자
호산나찬양대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왜 성경공부조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 질문이 시작이었다. 불과 3년 전, 누군가 지나가 듯이 툭 던진 질문.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네 가족이 될 거라서 그래.”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을 던졌다. 교회를 처음 다녀 본다던 그 사람은 잠시 아무것도 없는 천장을 올려다 보다가 이내 감흥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쳐갔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의도와 내용, 함의까지 명확하고 심지어 적확한 대답이 어떤 것인지도 머릿속으로는 꿰뚫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고, 잠시 방황했다가 나름의 인생 풍파 속에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느끼고 섬기기 시작한 아주 평범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 중 생기는 질문들에 완벽한 대답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의존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싶었다. 왜 우리는 교회의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를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 아닌 온전한 나만의 고백을 위해 나는 스스로 이 답을 찾아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왜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를까?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지키고 싶은 것일까?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에 처음으로 애착이 생겼던 날을 돌아봤다. 찬양대. 서로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는 공동체. 처음에는 그 음악이 좋았고, 그다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아졌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졌다.

작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찬양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학부로 번졌고, 나는 어느새 대학부에서 내 이름을 건 가족을 만나고 있었다.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고, 누리지 못한 이에게는 누릴 기회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고 한다면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으로부터 생긴 죄책감 때문도 있을 것이고, 그냥 사람들이 좋았다는 것도 이유가 되리라.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스쳐 간 사람들, 아직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인생이 고달팠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행복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힘든 삶을 교회에서 위로받으며 견뎌내고 있었다. 나는 마치 농장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의 행복을 따다가 혼자 시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붙잡아두려 했다.

‘가장’. 그래, 아직 결혼도 출산도 겪어보지 못한 그 때의 내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그 두 글자였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구성원 모두를 가족으로 느끼게 만들어

나는 가장이 된 기분이었다. 어떻게든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려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던지고, 모범생처럼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되 교만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품으면서, 명절 연휴 끝 손자들을 돌려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다음 주에도 꼭 보자는 약속을 받아내는 가장.

그리고 그 생각에 이르러서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려 했던 근본적인 대답은 애초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녀를 키우는 데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에 정답이 어디 있어? ‘왜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찾으려는 것은 요컨대 ‘아이는 어떻게 생기느냐’는 네 살배기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정답을 찾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게 된 계기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찬양이었고 다른 누군가는 힘든 순간 붙들어 준 말씀일 수도, 한번의 설교였을 수도, 힘든 순간 붙잡아준 한 번의 손짓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농구를 주

제로 한 유명한 만화의 한 장면처럼,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가벼운 제안 덕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한 지붕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평생 집에 머무르는 꿈을, 누군가는 독립하는 꿈을 꾸더라도 결국 가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제각각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본적을 두고 있는 한 페이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몇 글자 이름들이다.

“왜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만약 같은 질문을 지금 받는다면 나는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재치를 짜내는 대신 편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 **만남**



우대권 성도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대학부찬양대 부대장

고등부

서울 곳곳 신앙의 유산을 찾아 나서다

해마다 고등부 겨울수련회 장소로 사용하던 영락기 도원을 올해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의 일입니다. 급히 장소는 교회로 정해졌고, 교회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인 수련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릴레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중 “우리 교회는 명동이라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수련회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어, 어디로도 접근성이 좋은 우리 교회의 이점을 활용해 기독교 신앙유적 순례를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체험적 신앙활동으로서 큰 의미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 청년부에서 성지순례로 여수 애양원에 갔을 때, 책을 통해 접했던 활자 속의 손양원 목사님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을 통한 신앙

유산을 나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제게 성지순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였으며, 습관처럼 굳어버린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봐야 하는 신앙의 순례지는 굳이 멀리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독교 유적지가 전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있고요.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활동은 서울 시내 신앙 유적을 찾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신촌, 서대문-정동, 종로, 마포 등 서울 시내 4개의 벨트를 정하고 답사를 나갔습니다. 다소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계획이 선생님들에게 더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많은 신앙유산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동선과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각 벨트에 몇 곳의 장소를 선정했고, 아이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장소마다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런닝맨’이라는 TV 프로그램처럼 본부는 지령을 내리고, 인솔교사와 아이들이 미션을 해결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되고 서울 시내 신앙 유적을 찾아 떠나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진 찍는 미션, 동영상 촬영 미션, 암호 풀기 미션 등을 실시간으로 본부로 전송하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솔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서울 시내 기독교 유적지 벨트 소개

ベルト	탐방 장소
신촌 벨트	연세대(언더우드 기념관, 스팀슨/언더우드/아펜젤러관) - 새문안교회 - 윤동주문학관
서대문~정동 벨트	독립문 - 서대문형무소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 정동제일교회
종로 벨트	우당기념관 - 태화복지재단 - 승동교회 - 탑골공원 - 연동교회
마포 벨트	절두산 순교성지 -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성당 옛 십자가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하니 참 좋았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현장에서 전승 해온 사진들을 모아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동영상으로 엮어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끽! 딱!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최고입니다. 어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새삼 또 느꼈습니다.

서대문~정동 벨트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던 학생들이 그곳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며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는 구 서울구치소의 일제강점기 명칭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었던 민족 수난 현장입니다.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우리나라 역사 및 독립에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 유적 탐사를 떠났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느라 지쳐 보였

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활동하셨던 유적을 접한 그 시간 동안 분명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독인으로서 새로운 신앙의 씩이 자라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녁에 학생들이 소감을 진지하게 나누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고등부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더 나아가 해외 성지 순례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만남**



김영미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고등부 교사

말씀노트 쓰면서 사순절을 지냈어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을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1부 찬양대 배세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와 4학년 동생은 유치부 때부터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매주 아침 일찍 시작되는 찬양 연습에 늦지 않기 위해 출린 눈을 비벼가며 교회에 가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율동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좋아서 한 주 동안 예배시간을 기다리곤 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소년부 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2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찬양대 활동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 주일 아침 온라인 예배시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침 이 기간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모두 각자의 성경책과 말씀노트를 들고 한자리에 모여요. 먼저 기도하고 사순절 말씀 달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각자 노트에 말씀을 적은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저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말씀쓰기를 전에도 해봤지만, 이번처럼 열심히 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아빠, 엄마께서는 이 말씀노트가 나중에 저의 보물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말씀 쓰기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끝나지만 온 가족이 모여 드리는 가정 예배는 앞으로도 매주 한 번은 꼭 드릴 거예요.

코로나바이러스가 학교도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바뀌지 않고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당연한 것 같았던 예배시간을 더욱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선생님, 친구들과 다같이 모여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만남**



배세온
소년1부

호롱불이 꺼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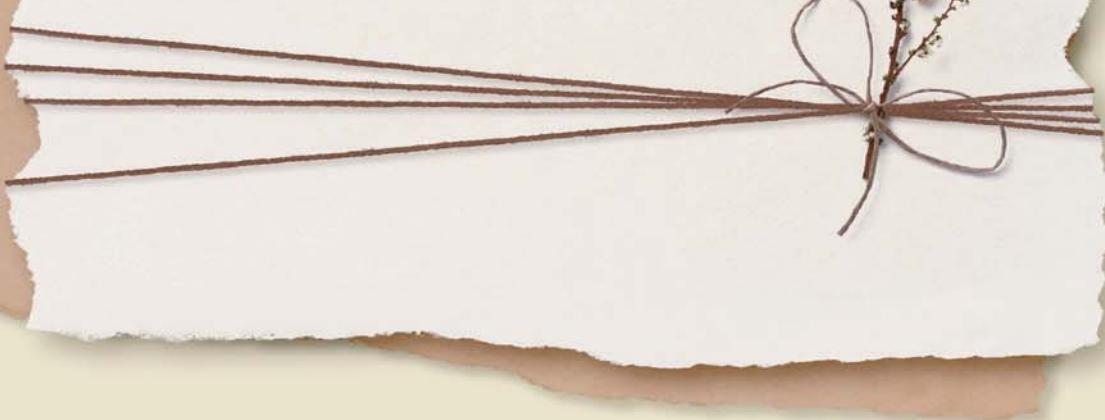
호롱불이 꺼질 때
고달픈 영혼 내려놓고
암흑 속 주님 말씀 기도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고
온 세상 환히 밝아집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매 순간 주님 찬송합니다.

- 3월 1일 주일 설교 <호롱불이 꺼질 때>를 듣고

이정원 집사_인천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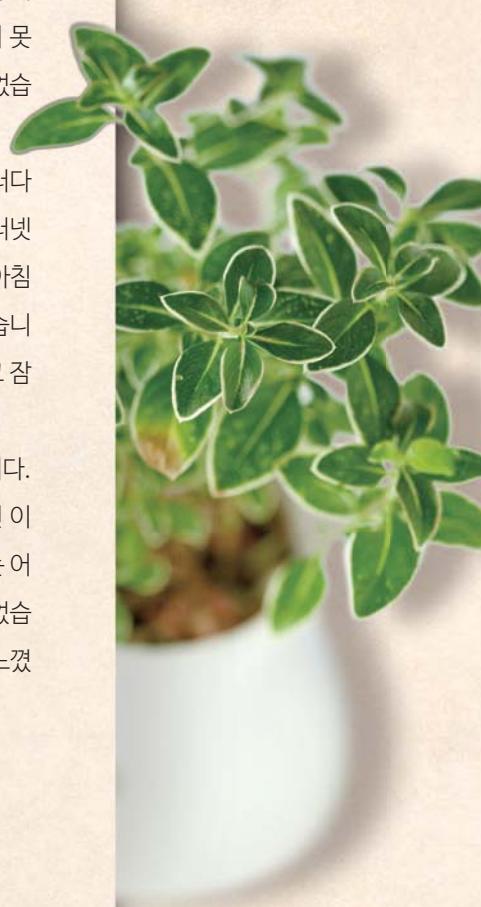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 코로나19가 변화시킨 내 삶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이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토요일마다 참석하던 찬양대 연습은 취소되었고, 무엇보다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보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카페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허전한 마음이 들어 매일 아침 독서실에서 119대작전 말씀 영상을 꼭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그날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부끄럽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저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야만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었던 이른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좀 더 예배와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유진 성도
고양·파주교구
호산나찬양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요?

교회에 가지 못하자 더욱 예배가 갈급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전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위기의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주라는 시간 속에서 저에게 하나씩 답을 주시며 제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119대작전 제 10일째 말씀인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라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이웃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19대작전 행동목표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추가하고 매일 코로나19와 이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흡불이 꺼질 때’라는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어둠과 같은 이 시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전에 습관처럼 드렸던 가식의 예배를 반성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배를 대하던 이전의 나의 모습들을 반성하며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커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곧 이때라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 내가 그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땅했지만 이내 맑아지는 기분이었고 속에서는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예배를 드린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곧 이때라”라는 말씀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러고 나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식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때를 통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태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 극복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함께 올려 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저부터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려 합니다. 카페에서든 집에서든 길거리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안녕**



이미경 권사
서대문·은평구
39구역장

야, 너도 구역장 할 수 있어!

“애기를 구역장으로 보냈네.”

9년 전 파견 구역장으로 섬기게 된 낯선 동네에서 만난 권사님들의 첫 인사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애기 구역장에서 섬김이 예쁘다며 예쁜 구역장으로 호칭이 변했고, 지금은 우리 구역장님이라는 정감 있는 호칭을 들으며 직분의 무게를 더 느낍니다.

구역장이라는 직분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연륜 있는 권사님들의 섬김이라고 생각했기에 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를 단지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차로 30분이나 걸리는 구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신임 구역장 교육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첫 『만남』을 받아 놓고 하루이틀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더는 미룰 수 없어 한파가 몰아치던 1월 어느 날 심방 카드를 들고 무작정 나섰습니다.

구역장이 공석이던 구역이라 구역 식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내비개 이션이 알려 준 집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문 앞에 서서 기도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구역장의 돌봄이 없던 구역이다 보니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반겨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린 구역장을 못 미더운 시선으로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화를 내시며 잡상인 취급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미성숙한 저는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구역장이라는 직분에 걸맞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고 편한 신앙생활이 그리웠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쓰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못 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듯 의미 있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경공부를 해보라는 권유에 뭍 모르고 시작한 공부반이 구역지도자반이었는데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적어서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평소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냥 ‘운전을 잘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선물로 다른 사람을 기

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은 은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인 것 같다'라고 고심 끝에 적어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본 그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라" 라며 격려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삼스럽지만 그때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견구역이다 보니 장소 문제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장소를 제공하신다고 해도 구역이 너무 넓어 연로하신 분들이 몇 정거장씩 차를 타고 모이신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각 가정에 들려서 모든 분을 태우고 한 집씩 돌아가며 예배드리기도 해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구역장 집에도 와보고 싶다 하시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져서 『만남』이 나올 때면 가정마다 개별 심방을 했는데, 꽃 장식을 만들어서 작은 선물로 들고 가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제 손 가득 사탕이며 과자를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사라고도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전과 손재간으로 구역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4년이 지난 후, 그곳에 후임 구역장을 세우고 저는 새로운 구역으로 다시 파견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파견 구역 식구분들도 부족한 제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구역이 합쳐지면서 더 큰 구역을 섬기게 되었는데 전임 구역장의 배려와 섬김으로 두 번째 구역에서 3년의 섬김을 마치고 저는 지금 세 번째 파견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은퇴할 때까지 69구역 다 파견 나가겠다며 웃지만, 구역이 바뀔 때마다 낯가림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며 부족한 나를 다시 마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구역 성도님이 몇 달 동안 공을 들여 직장 동료 한 분을 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혼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교제가 없다 보니 지인을 인도는 했지만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예배 후 차라도 마시자고 함께한 자리에서 성도님은 저를 그분에게 "우리 구역장님이 교회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제게 퉁하고 들어 온 그 말씀은 구역장으로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 1:12)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힘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모자라지만 내가 쓰임 받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의 모습 그대로 충성스럽게 여겨 주신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긴 지난 9년을 돌아보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은혜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구역 식구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힘입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듬어 주셔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바쁨과 부족함을 핑계로 구역 섬김을 미루지 말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만남**

꽃바람에 코가 ‘간질간질’

- 알레르기 비염 -

쌀쌀한 겨울이 지나가고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모든 사람이 봄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란 특정한 원인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생체 내에서 이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면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꽃가루, 음식물 등 다양합니다. 이 중 식물이 번식을 위해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에 접촉하게 될 때 과민반응을 보이게 되는 현상을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원인물질로 인한 다른 알레르기와는 달리, 계절 변화에 따라 발생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원인이 되는 꽃가루도 다른데, 2~3월에는 개암나무, 오리나무, 4~5월에는 포플러, 자작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의 수목 꽃가루, 6~7월에는 큰조아재비, 호미풀, 오리새, 우산잔디 등의 목초 꽃가루, 8~10월에는 쑥, 환삼덩굴, 돼지풀 등의 잡초 꽃가루가 원인이 됩니다. 알레르기 환자 개인에 따라 원인 꽃가루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2월 중순~5월 말과 8월 중순~9월 말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은 꽃의 개화 시기에 심하다가 꽃가루가 사라지면 2~3주 이내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증상은 과민반응을 보이는 체내의 기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중에 떠다니던 꽃가루가 코로 들어오면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레르기비염을 일으키게 되며 재채기와 코의 가려움증, 맑은 콧물과 코막힘을 초래합니다. 알레르기비염인 경우,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감기와 달리 원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에 증상이 발생하며, 인후통이나 열, 몸살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레르기비염 이외에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은 기관지천식, 결막염, 그리고 아토피피부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원인물질에 대한 면역글로불린E를 확인



정광운 안수집사
의료선교부
고려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하는 피부반응 검사 혹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알레르기비염 증상 발생과 함께 꽃가루 알레르겐에 대한 항원을 확인한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비경이나 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코의 점막 변화를 확인합니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비염의 치료는 크게 회피요법(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그리고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회피요법은 원인물질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아 실내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옷을 갈아입고 샤워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페이지(www.pollen.or.kr)를 이용해 날짜별로 국내 각 지역의 꽃가루 예상 수치와 알레르기 유발 지수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물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부신피질스테로이드 분무제 및 비충혈 제거제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재채기와 콧물에는 효과적이지만 코막힘에는 효과가 작으며, 졸리고 나른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강 안으로 분사해 사용하는 비강 내 스테

로이드 분무제는 특히 코막힘에 효과적이며,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알레르기비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제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원인 항원을 체내에 소량씩 꾸준히 노출해서 몸이 항원에 적응하도록 돋는 면역치료가 있는데, 면역요법은 1년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보통 3년에서 5년간 지속합니다. 그 외에 알레르기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약물치료와 병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알레르기비염으로 인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후각 소실, 만성 기침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증상을 줄이고,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

결혼을 위해서는 세 번 기도하라



결혼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니 그동안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 밀려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실러는 “만일 결혼이 없다면 인생의 초기엔 도움이 없고, 그 중간에는 기쁨이 없고, 말년에는 위안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신성한 예전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출전을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하고, 항해를 위해서는 두 번 기도하며, 결혼을 위해서는 세 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큰일인 결혼은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쌍방의 엄숙한 자원이고 최선의 결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결혼하라. 양처를 얻으면 행복자가 되겠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아마 풍자한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결혼은 서로의 편의를 위한 계약이 아닐 것입니다. 쌍방의 인격과 사랑의 결합이요, 믿고 사랑하는 신뢰의 결속입니다. 웨딩마치와 함께 울리는 축복송의 한 토막 가사 “행복의 문 열려라. 행복을 누릴 자 들어온다”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권리가 주어지는 셈이지요. 평생을 갈고 닦는 조각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스위트 홈(sweet hom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준 사랑의 서사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 불가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창 1:27)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이고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슬라브족 언어로 성(性)은 ‘반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있어서 서로는 나보다 나은 ‘반쪽’이 되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오뱅크 교수는 “본래 아담에게는 신체에 남녀 모두의 성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한쪽을 갈라내어 여자를 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어찌 되었건 일부일처주의는 창조의 질서에 뿌리박은 원리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11절에 있듯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



이영철
집사
강북·도봉교구



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결혼은 온갖 복의 근원으로 남녀의 신성한 결합입니다.

단테도 “남자는 덕성을 여자는 미(美)를 그리고 사랑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험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아보고 나서 맞으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실로 사랑의 보금 자리가 아니고 입센의 ‘인형의 집’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이 있을 것입니다. ‘혼수’를 마련하듯 결혼을 앞둔 사람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힘’에 무엇을 담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례사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생존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따라서 부부

는 공동의 작품을 위한 공동의 창작자입니다. 사실 남편(男便)과 아내란 말은 짹이 맞지 않습니다. 우선 남편은 한자이고 아내는 고유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부부는 오래오래 젊고 싱싱하게 신랑과 신부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반지는 서약을 보증하는 표시이고 ‘금처럼 변치 않겠다’라는 설명을 담은 기호품일 것입니다. 아내(신부)들이여, 결혼반지의 의미를 간직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애인이요, 중년에는 친구로, 노년에는 간호사가 되십시오. 남편들이여, 인생을 두고두고 없어서는 안 될 아내의 띠가 되십시오. 영어로 남편은 허즈번드(husband)라고 합니다. 원래 앵글로색슨의 말인 이 단어는 ‘집의 띠’가 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만날**

까마귀와 늑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시편 147편 9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새 중에 왜 하필 까마귀를 말씀하셨을까요?

까마귀는 새 중에서 가장 영리하며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도 의리의 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새 중에서 부모를 가장 잘 돌보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자기가 낳아준 어미가 병이 들었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서 먹이사냥을 못하게 되면 어미를 봉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까마귀(Crow)를 보면 재수 없는 흉조(凶鳥)라 하고, 까치를 보면 반가운 손님 온다고 길조(吉鳥)라고 합니다. 사실 까마귀는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가고 까치는 잔칫집에 갑니다.

초상집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의 묘한 심리로 먹을 것을 아끼지 않고 막 버리기도 하니까 자연히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여기에 까치가 넘볼 수 없는 것이 힘이 센 까마귀가 까치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니 자연히 까치는 밀려서 풍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잔칫집(결혼식)에 갈 수밖에 없지요. 까치는 우리의 명절인 설날에 예쁘게 나옵니다만 요즘은 농가에 민폐를 많이 끼치고 특히 아무 데나 집을 짓는데 전봇대 등에 집을 지어 정전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귀찮은 존재로 추락하였습니다. 반면에 까마귀는 지능지수도 높아 부리로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힘센 독수리가 와도 겁 없이 같이 먹이를 먹으려고 뛰어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시간 기다리다가 끝내는 먹이를 낚아채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라 하지만 아랍에서는 까마귀를 예언의 새로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대단히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길조라고 대단한 대접을 받지요. 일본에는 까마귀의 생태를 연구한 대학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는데 사람이 자식 교육하듯이 아기 때부터 나는 법, 우는 법, 먹이 먹는 법을 가르치는데 한 번 배우면 기억하고 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성남 은퇴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까마귀는 부모를 가장 잘 돌보는 새 늑대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

『어느 날 배나무에 까마귀가 앉았는데 아래에서 뱀이 기습 공격하여 뱀의 먹이가 되려는 찰라, 마침 지나던 농부가 발견하고는 뱀으로부터 구해주었답니다. 그 후 이 까마귀는 농부가 일하는 곳에 와서는 머리 위로 빙빙 돌면서 울고 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까마귀는 어디서 물고 왔는지 호두며 과일을 물어다 주곤 했습니다. 사형선고 받은 농부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에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도 울리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사포가 가서 보니 까마귀가 종 밑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사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형을 중지하고 석방해줬다는 옛이야기¹가 있는 것을 보면 까마귀의 기억력이 대단함과 동시에 의리의 새로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바꾸어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다 늑대야”라고 안 좋게 말할 때 늑대를 인용하는데 이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늑대는 무척 영리하고 무리를 지어 살면서 매우 가정적이며 일부 일처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컷인 대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새끼들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헌신적으로 먹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항상 굴 밖에서 가족을 철저히 감시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늑대가 인간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먹이 때문입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 먹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죽일 수밖

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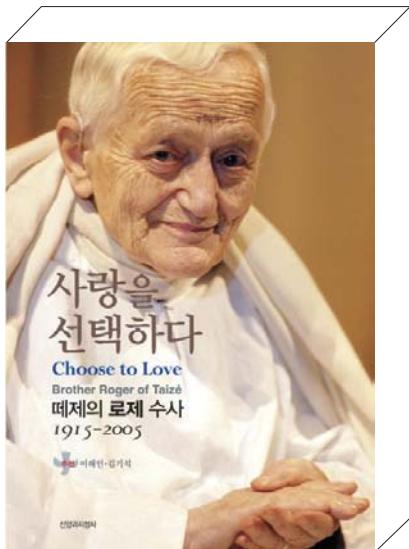
회색 늑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장 늑대는 먹을 것이 궁하면 마을로 내려와서 양뿐만 아니라 가축을 잡아가는데 마을사람들은 이 회색 늑대를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총을 쏘는데 늑대는 총을 발견하면 숨어버립니다. 늑대의 시력은 사람 보다는 못하지만 청력은 사람보다 훨씬 우수할 뿐만 아니라 후각도 예민하여 총을 겨누는 소리와 총의 화약 냄새를 후각으로 맡고 사람 냄새를 멀리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 속에 미끼를 넣어도 알아 채고 미끼만 남기고 고기는 먹어치웁니다. 고기 속에 독약을 넣으면 사람의 냄새가 짜든 고기임을 알고 발로 차버리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늑대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포기 하겠습니까? 최후의 방법을 구사하는데, 일단 새끼 양을 우리 밖에 매어놓고 매어놓은 몇 발자국 앞에 장갑 낀 손으로 덫을 놓아둡니다. 그러면 늑대 부부가 사냥을 나왔다가 어린 양을 보고는 사정없이 덤벼듭니다. 이때는 대장이 말릴 틈도 없이 암놈이 먼저 시식을 하려다가 덫에 걸립니다. 암놈을 구하려 대장이 이빨로 덫을 물어뜯다가 사람이 몰려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암놈 늑대를 죽이지 않고 우리에 가두어 두고서 수놈 대장을 유인합니다. 암놈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결국 대장은 이성을 잃고 암놈을 구하려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초적인 사랑의 본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안녕**

¹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다

- 떼제공동체의 로제 수사 이야기 -



떼제공동체 지음 / 신한열 역 / 신양과지성사 / 141쪽

변화 앞에 선 오늘, 미래를 염려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기고한 글에 나온 말입니다. 한 권의 책에 대한 글을 쓰는 이때는 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세상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부분 이전과 같지 않을 것,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기능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상황인지를 대부분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이 변화 앞에 선 세상의 관점에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변화 앞에 선 그때, 천국의 누룩이 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한 개신교 청년이 안전한 중립지역인 스위스를 떠나 당시 둘로 나뉘어 있던 프랑스에 가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떼제’라는 프랑스 동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여기서 작은 집을 마련하고, 기도 생활과 포도원을 일구면서 근처 독일 점령지에서 빠져나온 피난민들, 특히 유대인들을 몰래 맞이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대로 독일군 포로들을 맞이해 돌봐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제 슈츠-마르소쉬 (Roger Schutz-Marsauche, 1915~2005)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떼제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었던 로제 수사의 전기를 담은 책입니다. 1940년 떼제공동체를 시작할 때 25살의 청년 로제는 홀로였습니다. 홀로여도 그의 마음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속에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들고 싸운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그들만이라도 서로 화해해야 한다’는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과 화해의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 녹여 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홀로였지만 떼제의 작은 집을 마련해 기도하며 전쟁 피해자들뿐 아니라 나중에는 가해자

로제 수사는 유럽이 두 진영으로 분단되어 고착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부터 그것이 무너진 198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수사들이나 떼제가 파견한 젊은이들이 철의 장막 너머에 고립되어 있던 동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했다.

- 「사랑을 선택하다」 중에서

였던 독일군까지 품으며 보살폈던 삶이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선포나 강력한 의지를 외부로 투사하는 사역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수련 속에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면서도 가장 가난하거나 쫓겨난 자들을 품고 보살피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시골의 작은 공동체가 어두웠던 당시의 시대를 비추는 작지만 소중한 빛이 되었고, 미래의 소망을 잃은 그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는 적은 누룩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공의회

당시 유럽은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정신적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기독교 국가인 자신들의 나라 사이에 발발한 전쟁을 겪으며, 전해진 신앙마저도 회의하고 떠나는 정신적, 영적 공백기에 처해 있던 때였습니다.¹ 떼제공동체는 형성된 초기부터 몇몇 젊은이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몇 명씩 와서 며칠, 혹은 몇 주씩 지내며 침묵과 쉼,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58~1960년부터 그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1970년에 로제 수사는 ‘젊은이들의 공의회’ 개최를 알렸으며 이후 1974년 개막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침묵하고, 대화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이제 그들 스스로가 신앙의 확신과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일어서는 청년들이 유럽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공의회는 흉날

‘범세계적 신뢰의 순례’로 바뀌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의 물결, 신실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교제 물결은 당시 철의 장막을 넘어 동구권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떼제는 매년 수천 명의 유럽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귀한 장소가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로부터 매년 여름이면 수천 명의 청년이 떼제공동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다

가난하고 소박한 삶, 겸손하게 경청하는 삶, 듣고 신뢰해 주는 삶을 통해 신앙의 우애를 빚어내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제(koinonia)의 신비를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형제들이 변화되고 젊은이들이 변화되었으며 그 물결이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우애와 신뢰는 화해를 이루고, 새로이 신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자의 삶을 택한 로제 수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 젊은이들의 공의회를 만드시고, 시대의 영적 공백을 채우시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화해의 물결을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다시금 성도의 교제의 신비라는 소중한 영적 유산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저녁, 떼제의 화해의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공동기도를 드리던 중 로제 수사는 정신병을 앓는

¹ 이후 196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히피문화와 반체제문화를 포함한 강력한 세속화 물결이 일어난 배경에는 분명히 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정신적, 영적 황폐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죽음 이후 폐제의 형제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 하심을 느꼈고, 작은 우리 공동체는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치를 체험하며, ‘한마음 한뜻’(행 4:32)”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 수사가 남긴 그 귀한 유산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와 그의 유산을 정리해 가장 먼저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로제 수사를 생각하며 그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다.』

코로나19로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때, 로제 수사가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과 헌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만날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셀프 책 소독기 설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 2월 말부터 교회식당을 비롯한 교회 내 다중이용시설들이 잠시 운영을 멈춘 가운데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은 최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용자가 직접 책을 소독할 수 있는 셀프 책 소독기를 설치했다. 기념도서관이 주일에 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교회

인근 직장인들도 다수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3층 열람실 입구에 설치한 책 소독기는 한 번에 5권씩 1분이면 간편하게 소독을 마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외선램프 살균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 허브 향균제 소독을 통한 이중 살균으로 책 표지뿐 아니라 내지 깊숙한 곳에 발생할 수 있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등을 99.9%까지 소독해줌으로써 재개관 이후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념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재개관 일정을 홈페이지(www.library.revhan.net)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며, 현재 도서 반납은 3층 엘리베이터 앞 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

사진제공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찬양에도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나 문서를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다. 찬양에도 육하원칙이 있다.

1. 누가(who) 찬양할 것인가?

찬양은 찬양대원이 하는 것이다? 혹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답이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시편 150편 6절에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찬양해야 한다. 누구나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실제 좋은 찬양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찬양대원이다. 그러므로 찬양대원은 회중을 대표로 연습하여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when

2. 언제(when) 찬양할 것인가?

기쁘고 감사할 때 찬양한다? 이것도 정답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기쁨이 가득해서 찬양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 로다” (삼상 18:6~7)

이것은 기쁨 가득한 찬양이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Magnificat) 라틴어, 한글찬송

제목: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눅 1:46~55)도 대표적인
기쁨의 찬양이다. 한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
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행 16:25)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감옥에서 슬프고 억울할 때도 찬양을 한다. 또 “그
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 26:30)와 같
이 기도하기 전에도 찬양한다. 철야 기도회나 각종 기도회
전에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찬양은 언
제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
문이다.

3. 어디서(where) 찬양할 것인가?

찬양은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한다? 이것도 정답은 아
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22)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5)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
다” (시편 48:1)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3)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

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50:1) 여기서 궁창은 넓게 펼쳐진 공간, 대기권을 벗어난 둑근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다.

4. 무엇을(what)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찬양한다.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찬양을 드린다.

찬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는데, 경배의 찬송, 고백의 찬송, 감사의 찬송, 탄원의 찬송이다. 이를 영어로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이라고 쓰는데, 이 첫 글자를 합치면 ACTS(사도행전)가 된다.

여기에 절기 찬송(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 등)이 더해진다.

how

5. 어떻게(how) 찬양할 것인가?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 찬양할 때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찬양대가 정교한 노래를 할 때는 다를 수도 있다.

찬양하는 방법으로 먼저 악기를 울리는 찬양이 있다. 대상 15:16, 시편 42:4, 47:1, 67:4, 95:1 등에서는 비파와 수금과 제금과 같은 악기를 울리고,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했다. 위 성경 말씀에서 보듯 구약시대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다. 구약시대의 악기로는 타악기인 소고, 제금, 양금, 방울, 경쇠(철금)와 현악기

인 수금, 비파(하프), 관악기인 나팔, 피리, 쇼파르(양각나팔) 등이 있다.

시편 33:3, 40:3, 96:1, 98:1, 144:9, 149:1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찬양대는 이 말씀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찬양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을 한 번 연주했으면 다시는 연주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의 생각에 ‘새 노래’란 새로 작곡한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마음이 중요하다. 연주했던 노래를 다시 연주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욱 정성을 들여 연주하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된다고 생각한다.

시편 48:1, 96:4, 대상 16:25에는 극진히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찬양을 드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 연습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양대의 목표이다. 찬양대가 열심히 모여 연습하고, 암기해서 노래하고, 잘 될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악기와 노래가 어우러졌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악기 사용이 금지되고 오직 노래로만 찬양했다.

엡 5: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에서 보듯 신약시대에는 찬양의 종류가 시편과 찬송과 그 밖의 신령한 노래들로 구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4:15에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윗이 켜는 수금에 사울의 악신이 물려가는 영적인 찬양, 사도 바울이 옥중

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즐거이 부른 찬양,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간한 후 제일 먼저 드린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찬양이다. 그럼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이해(understanding)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한다.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고, 곡조를 이해하고,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는 찬양이다.

why

6. 왜(why) 찬양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다. 이사야 43:21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다른 아닌 찬양을 듣기 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찬양은 우리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에 있어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에 대한 답은 신약성서에도 나와 있다. 엡 1:3~6 “찬

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고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 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찬양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찬양이란 것을 잊지 말고 늘 찬양하는 영락의 식구가 되기를 바란다. **만날**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막 10:52)



갈릴리 호수 팔복교회 언덕

성경 속 광야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며, 건조한 먼지바람만 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잠을 잘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



김충섭 목사
강동·송파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유대 광야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요단계곡과 사해의 중간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의 산지는 평균 고도 800m에 이르고 사해 인근은 해저 약 300m에 이르기 전에 약 1,200m의 고도 차이로 인해 유대 광야에서 사해로 가는 와디(사하라, 아라비아의 건조지역에 있는 간헐하천)들은 깊은 협곡들을 형성합니다. 이 부근의 연간 강수량은 300~400mm에 불과할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사해 부근인 동쪽으로 가면 50m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이스라엘에서 성경 시대의 자연환경을 거의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청정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지를 방문해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면, 여전히 전통적인 삶을 유지하며 양과 염소를 돌보며 살아가는 베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 가는 길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7~8)

두인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의 삶을 이어가는 베두인은 주로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약 3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광야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냈던 다윗이 양을 돌보던 곳으로 시편 23편이 배경이 되기도 하며, 세례 요한이 활동했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이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대 광야를 방문하면,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며 묵상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불뱀과 전갈, 여우와 이리가 출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작열하는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엄습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앞길이 막막한 곳이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지, 이정표도, 길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며, 우리의 눈길을 빼앗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절대 고독의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말라서 까맣게 타들어 가는 순간 여호와의 기운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자아는 죽고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가 돋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광야의 말씀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이고,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광야)’에 ‘다바르(말씀)’가 임합니다. 하나님



유대 광야 시험산 수도원에서

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만남으로 만나실 때면 언제나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시험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하고도 중요한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길을 지나고 있는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역시 온 생애를 순례자로 사셨습니다.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순례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온 생애를 순례자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마 9:9)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례자는 그가 걷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길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동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는 성경 속 대부분의 인물과 사건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이 응축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친히 땀과 눈물, 피를 흘리신 곳인 이스라엘로 순례의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삶의 길 속에서 야곱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듯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빛어 가실 것입니다.



요르단 마하나님 언덕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만남! 모바일 웹진 <만남> 오픈

홍보출판부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라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면서 3040 세대를 비롯한 영락의 젊은 성도들도 편리하게 월간 <만남>을 접할 수 있도록 5 월부터 모바일 웹진 <만남>을 오픈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처럼 <만남>을 접할 수 있는 웹진 서비스가 먼저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하실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모바일 웹진 <만남>은 말씀/칼럼, 선교/봉사, 교육/양육, 문화/교제, 영락NOW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기사 검색 기능을 탑재하여 독자 교우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모바일 웹진 <만남>의 소개와 이용 안내는 다음 호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 웹진 <만남> URL (<http://www.youngnakmn.net>)



은퇴제직상조회 안내

우리 교회에는 은퇴제직상조회(회장 김영대 장로)가 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은퇴제직상조회는 이를 그대로 함께 교회 봉사를 해오며 친교를 나누던 제직이 은퇴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는 단체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해 부의금(회원 1인당 1만 원)을 모아 유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합니다. 지난해 12월 은퇴하신 제직은 올 6월 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제직상조회에 관한 정보를 일문 일답으로 알려드립니다.

1. 누가, 어떻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으로 봉사하시고 은퇴하신 분에 한하여,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은퇴하신 제직은 올해 6월 말 이전에 가입해야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조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회원이 돌아가시면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부조금을 수납해 상을 당한 유가족 중 수권자에게 조화와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상조회는 부조금, 회비, 가입비, 적립금 등을 수납, 관리합니다.

3. 연회비는 얼마이고 회비 수납과 입회원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일반 회원은 연 1만 원이며 면제(부조금 납부 면제) 회원은 상·하반기에 각각 1만 원씩 1년에 2만 원입니다. 입회비는 10만 원으로, 입회 당시 1회만 내시면 됩니다. 회비 및 입회원서 접수는 50주년기념관 로비, 각종 회비를 수납하는 곳에서 주일에 하실 수 있습니다(평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회비 수납은 은행 창구와 온라인뱅킹으로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는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4. 면제 회원 또는 ‘면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면제 회원이란 만 88세로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00개월이 지난 정회원에게 부조금 납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 ‘면제’란 운영 자금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보유 자금에서 부의금을 지급하고 각 회원으로부터 부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 별세자는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과거 10년을 평균해 볼 때 29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 부조금으로 내는 금액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6. 회원 별세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먼저 경조부 간사(정병희 집사) 또는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별세 사실을 알려 주시면 은퇴제직상조회는 경조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조회 임원이 상가를 방문해 문상하고, 부의 단자(거래은행, 통장번호, 연락처)를 작성한 다음 주 안에 송금해 드립니다.

7. 부의금은 누구에게 전달되며 부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처음 입회원서를 쓰실 때 제1수권자, 또는 제2수권자로 명기한 분의 계좌로 부의금을 송금합니다. 2020년 현재 부의금은 600만 원이며 앞으로 점진적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수권자를 변경하실 경우 수납처에 오셔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교회에 입력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셔서 수권자 변경 사유를 말씀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8.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별세해도 부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전액(6백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안 된 경우 연차별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회칙 9조 참조)

9. 부의금을 장례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까?

본 상조회는 주일에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을 당한 해당 주 주일이 지난 월요일 이후에 부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례 기간 중에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10. 회원 자격의 유지는 어떻게 가능하며, 중도 탈퇴가 가능한가요?

회비 미납이 장기화하면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회칙 5조 4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중도 탈퇴는 수납처에 오셔서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탈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중도 탈퇴하면 그동안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 납부한 회비는 중도에 돌려드리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하시면 회원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수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중도 탈퇴 회원에 대한 부의금은 5년 이상 가입 시 200만 원이며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회칙 9조2항 참조)

12. 회원 별세 시 어떤 경로로 회원들에게 공지하나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공지하며, 휴대 전화가 없으신 분은 수납처에 오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휴대 전화 변동이나 공지 내용을 받지 못할 때, 간사 권철 집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시면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만남**

교회 소식

news letter

한경직 목사 20주기 추모예식

올해 20주기를 맞은 한경직 목사 추모예식이 지난 4월 17일(금) 오후 2시 본당에서 열렸다. 당초 영락 교회공원묘원 묘소에서 성묘예배로 진행키로 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우천으로 말미암아 본당에서 추모예배 형식으로 드리게 되었다.



이날 유가족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직기념사업회 연구목사인 최승도 목사 인도로 시작한 추모예식은 임정산 은퇴장로의 기도와 교역자 일동의 특송이 있은 후, 김운성 목사가 고린도전서 16:13~14절을 본문으로 ‘강하고 부드럽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강해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 위해 달려감으로써 목사님의 남겨진 사명을 이어가자”고 전했다. 이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정영근 장로가 광고를 통해 올해 ‘2020 한경직 목사 기념상 및 논문상 공모’와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배우는 ‘한경직 학교’가 하반기 진행 예정임을 알린 후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추모예식을 마쳤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매일 새벽 6시(토요일은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예수님, 우리의 완성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본당 예배와 동시에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성도들의 가정에 전달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기도회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완성자(마22:41~46)’, ‘주님의 때, 우리의 때(마26:17~19)’, ‘좀 더 기다려야 할 이유(마27:3

~5)’, ‘묘지가 아니라 거처를 주시다(마27:3~8)’, ‘좋은 믿음이라는 것(마27:39~44)’, ‘무덤을 향하는 마음(마27:57~61)’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새벽 기도회 설교를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채우시는 완성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고난 주간동안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 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한혜원 목사, 선친 20주기 맞아 영락 성도들에게 감사 전해와

한경직 목사님의 아들 한혜원 목사(82세)가 선친의 20주기를 맞아 최근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루이스빌에 거주 중인 한혜원 목사는 딸을 통해 보내온 이메일 서신에서 ‘아버님의 신앙유산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기울여준 영락교회의 배려와 성도들의 기도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혜원 목사는 2015년 아내 한혜순(Donna Rae Houser Han) 사모와 사별한 후 딸과 함께 지내다 2018년 연말 낙상을 입어 두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요양을 병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가 한경직 목사 20주기인 점을 고려하여 지난 2월 당회 결의로 한혜원 목사의 치료를 돋고자 미화 1만불을 지원했다.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혜원 목사

제공 한진유 은퇴장로

5월 목회력

1일(금)	연합권찰공부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3일(주일)	어린이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9일(토)	가족사랑 대잔치
10일(주일)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특별예배, 제직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16일(토)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17일(주일)	교육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22일(금)	심방준비회
22일(금)~24일(주일)	청년선교비전
24일(주일)	사회봉사주일, 다음세대 기도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31일(주일)	성령강림주일

※ 5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우리 교회 미술인 선교회 전시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당시 부모님 수술과 병환으로 저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었고 가족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형이 베개를 업고 있는 형상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업혀 동행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작품의 주제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로 정하고 성경을 읽으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고, 다른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치유의 시간들을 갖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순이 집사_관악·동작·금천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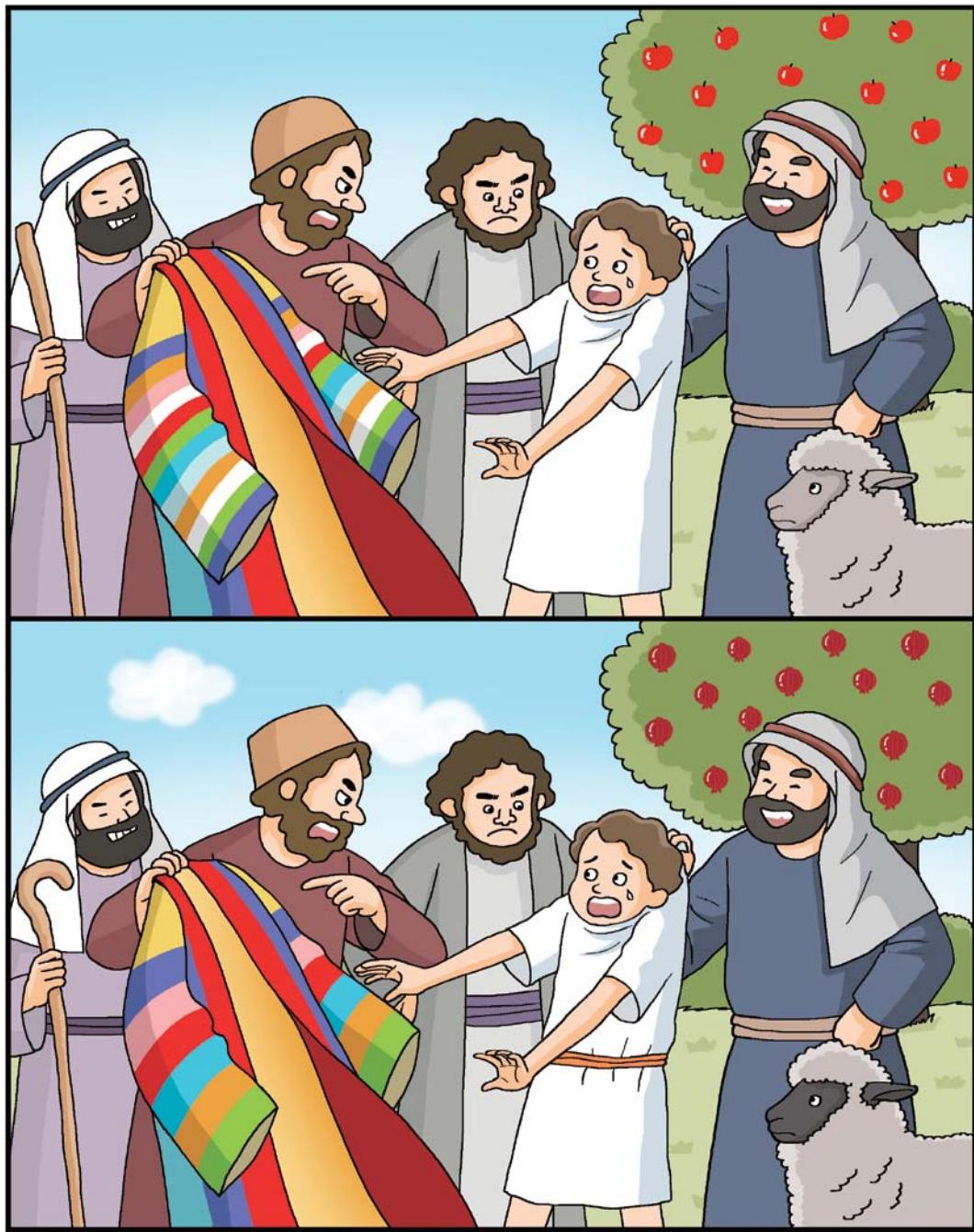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다른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요셉을 질투하던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 3:12~28) 쉬워도 너무 쉬운 다른 그림 찾기, 그림 속에서 7군데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편집장 레터

옛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실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태에서도, 곤핍이 극도에 달할 때도 초인적인 용맹심을 발휘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부하가 “페르시아의 군세(軍勢)는 몇십만이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자 알렉산더는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양이 몇십만 마리 있다고 해도 도살자는 한 사람으면 죽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하가 다시 “대왕, 저 페르시아군이 활을 쏘면 화살 수가 너무 많아 하늘을 덮을 정도입니다”라고 질겁하며 말하자, 알렉산더는 “좋아, 그늘 아래에서 싸우는 것도 유쾌한 일이지”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독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꾸려질 때 상승무적(常勝無敵)의 강군이 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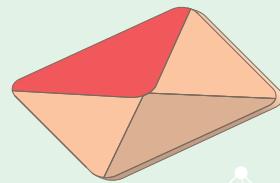
라 믿습니다.

다만, 성도로서 지금 이 때 가장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기독인의 삶은 ‘염려’가 아닌 새롭게 기획(企劃)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안에서 최선의 기획된 삶이 드러날 때 이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어린이, 어버이, 가족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119대작전’, ‘교육주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만남』은 5월에도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담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이 계절이 회복되기를….

편집장 이동훈



2020년 5월호 통권 556호

발 행 2020. 5.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 호
컬러링



영락화랑

어린아이 같은 우리



박순이], Cotton & Acrylic, 35.7×23.8cm, 2018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